

[그말씀 설교 10]

주님의 고난과 대야의 물

[본문] 요 13:5 / 김선도 목사 / 페이지 수: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 13:5).

기독교의 상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손수건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보혈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수건은 우리의 봉사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렌트(Lent)라고 불리는 교회력의 사순절 기간이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사신 부활 이전의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고난을 명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에 대한 기록이며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최후의 한주간 동안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방을 한 칸 빌어서 최후의 만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연히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원래 먼지가 많고 또 샌들이라는 간단한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꼭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나서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만찬회 석상에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과 함께 세족식이라는 의식까지 행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보면 손과 발을 물로 씻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며,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대야의 물에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대야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적 의미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형 판결을 받고 군중들의 고소와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도록 사형을 판결한 세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그는 예수님을 판결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교리에는 너무

나도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제가 참담한 말을 아였다”고 말하고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면서 사형에 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헤롯왕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므로 그의 관할에 속했다고 해서 그에게 유대 왕인 헤롯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는 호기심에 차서 “오랫동안 당신을 보고 싶었소.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잘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번 기적을 행해 보라”고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한 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왕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역인 유대 땅을 통치하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제사장과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데모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힐 만한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심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 니리 에는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유대 군중들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 정치가인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이 군중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면 자기가 그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 빌라도!’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판단하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민중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저(Caesar)의 충신이 아니라는 고소를 당하여 로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예수님이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소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었습니다.

군중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을 지겠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것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해서는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代價)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소서" 라고 외친 군중들이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전부 피의 수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2천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리방황하면서 피의 수난을 당하게 된 것 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 조상 들이 말한 대로 후손들이 피의 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대로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자신은 무죄하다고 세수 대야에 손을 씻었을지라도 그 죄과를 면할 길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내적인 죄를 씻기 위해서 대야에 손을 씻었지만 죄 씻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어 주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요한의 발부터 씻기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다혈적(多血的)이고 성급한 베드로는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하며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과 몸 전체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은 "목욕한사람은발만 씻어도 된다.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온 삼십에 팔아 버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아무리 발을 씻어도 그 죄는 깨끗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비추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1서 1장7절에는 '거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지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대야에 손을 씻는 행위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속죄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무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인격적 교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집권을 하시면 누가 수상이 될 것인가?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상공부 장관이 될 것인가?'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지위 다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제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 큰 지위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교만과 시기와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은 집권을 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여인들이 미리 알았는지 옥함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데 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 교만한마음,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풍속으로는 손님이 찾아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뿌린 다음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즉위하면 한자리하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에 누구하나 주님의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다 드신 후에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수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활에서 실제로 보여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정부 운동에 돈을 많이 던 아무개가 상공부 장관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과 재미교포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이 상공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직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치적 지도자들은, 마치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만 잘난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과 온유와 신실함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바로 살라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1952년 노벨상을 수상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카고 시에서 그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신문기자 등이 사진을 찍고 온 도시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한창 환영식이 진행되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갑자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부인이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짐을 차에 옮겨 실어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자 회견을 다시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신문에는 '어제 우리는 위대한 성인의 살아있는 설교를 보았습니다. 쉽게 흥분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슈바이처 박사. 그는 남의 발을 씻기는 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입니다. 성(聖)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가와 도유희코 선생은 수상이 되어 달라는 사라들의 요청에 대해 '나는 더러운 것을 씻는 신앙인입니다' 가가와 씨와 같이 섬기는 정신, 봉사하는 정신,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교훈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옆길로 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일생 동안 걸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지만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가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2년 전에 강남동 지방회 교역자들이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성인봉'이라고 하는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한 팀은 정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정한 시간에 돌아왔는데 다른 한 팀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임자로서 안타까워 산 밑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고 돌아갈 배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나서야 내려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지름길이 있으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길을 잃어 산 속에서 해매는 중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자칫하면 희생을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려다가 잘못 가기 쉽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날 일생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씻김받은 발을 가지고 부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고 윤리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가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사나워서 자꾸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주인은 강아지 목에 쇠사슬을 매서 기르며, 아침마다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고 먹을 것을 주는 등 보살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자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 가기만 하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잘 따르자 주인도 더 이상 강아지의 목에 쇠사슬을 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길로 가지를 잃고 주인을 졸졸 따라 갑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살길이 생깁니다. 그 강아지도 더 이상 목에 쇠줄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목을 맬 필요가 없고 윤리로 말미암아 구속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살길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길을 바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발을 씻으시는 진리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발을 씻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체험하시고, 남을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인격적인 의미와 교훈을 깨닫기 바랍니다. 외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그말씀**